

'오갈피' 평야지재배 약효 떨어질수도

낮은 해발고도일수록 가시 줄고 원형 변형을 높아

오갈피나무의 구분별한 재배지 선택이 효능저하 현상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일반인은 물론이고 재배농가도 오갈피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관심이 있다.

경남 산청에서 30여년간 오갈피 등 야생약초를 연구해온 농가 성관원씨(56·산청약초연구회 회장)는 "해발 높이에 차이를 두고 지역을 달리하며 수년간 오갈피를 재배·관찰 해본 결과 해발 높이와 재배 지역에 따라 생육 모습이 달랐다"고 주장했다.

성씨는 "토종인 지리산 오갈피를 해발 800m 이상의 산간지역과 300m 내외의 평야지역에서 키워 본 결과 해발 800m 이상 고산지대에서는



가시가 많던 것이 낮은 지역에서는 가시가 점차 없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성씨는 가시뿐만 아니라 잎 수도 고산지대에서는 5개가 뚜렷하게 많았으나, 낮은 평야지에 심을 경우 잎도 3~4개짜리가 달리는 수가 월등히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고 밝혔다.

성씨의 이같은 주장은 국내의 학계에서 오갈피의 탁월한 약효가 잇따라 발표되자 재배적지를 무시한 채 일고 있는 오갈피 입식 열기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성씨는 "지역에 따라서 가시와 잎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유효 약효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구분별한 재배지 확립이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릴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갈피는 대개 수령이 오래될수록 가시가 줄지만 낮은 해발고도와 공기 등 오염상태에 노출된 나무일수록 토종상태 원형을 빠른 속도로 잃어간다는 것이 성씨의 의견이다. 전화:055-741-7760.

전남 장흥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민)가 해독·해열·이노작용 등에 탁월한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동초를 이용, 기능성 건강보조식품인 발효액과 분말차를 개발했다.

군농업기술센터는 루테오닌과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 해독작용 등에 효과가 있는

인동초에 여러 가지 천연약초를 가미, 감기에방·숙취해소, 몸에 유해한 성분해독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영민 소장은 "인동초 발효액과 분말차는 몸에 유익한 각종 성분이 풍부하고 유해세균 증식을 억제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면서

인동초 발효액·분말차 개발 해독·해열·이노작용에 탁월

것으로 전해지는 자생식물 인동초로 발효액과 분말차를 개발, 특허출원과 의장 등록을 마치고 판매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군농업기술센터가 3년여의 연구 끝에 개발한 인동초 발효액은 인동초에 어성초·삼백초·영지버섯 등을 혼합, 장기간 발효와 숙성 과정을 거친 뒤 액체상태로 효소화한 것이다. 분말차는

"앞으로도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7일부터 군 특산품 홍보관매장(전화061-860-0388)에서 인동초 발효액과 분말차를 전시·판매하고 있다.

송이 인공재배 길 열었다

경북도 산림환경연구소, 기술특허출원

송이 인공재배 연구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

경북도 산림환경연구소(소장 박무창)는 2년 전부터 송이버섯으로부터 송이균주를 정확히 분리,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

지금까지는 분리율이 일본의 경우도 60%에 불과했으나 연구소는 이를 96%대까지 높이는 균주분리 및 배양에 성공한 것이다. 연구소는 이 기술을 지난달 특허 출원하고 균주를 미국과 유럽, 일본에 유전자로 등록했다.

송이는 다른 버섯처럼 죽은 나무에 기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소나무와 공생한다. 또한 다른 버섯은 해당 균만 배양시키면 버섯이 생기지만 송이는 자체의 균주만으로는 버섯이 생기지 않고 주변의 미생물과 공생해서 버섯을 만들어내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공재배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이번 연구로 송이 형성과정에 관여하는 물질군이 정확히 분리됨에 따라 인공재배에 새로운 진척이 이뤄지게 됐다.

연구소는 이 균주를 실험실 내에서 살아 있는 소나무에 감염시킨 감염모종 생산에도 성공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내년부터는 이 감염모종 소나

무를 대량 생산해 산 속 등에 심어 다른 버섯과의 공생과정을 통해 버섯을 형성해 가는 지를 지켜보기로 했다.

한편 산림환경연구소의 박무창 소장은 "소나무 뿌리에 송이 균주를 침투시켜 송이를 자라게 하는 일이 지금까지 한 일보다 몇 배 더 어려운 과정"이라며 "이 과정이 구명돼야 송이의 인공재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화:054-748-8843.

새 '동충하초' 개발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는 동충하초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잡사곤충부는 제주 한라산에서 자생하는 야생 동충하초인 애매미유충 눈꽃동충하초 균을 분리하는 데 성공, 혈압강화 효능이 탁월한 새로운 동충하초의 대량 생산기술을 개발해 지난 8월 특허출원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농가에 시범 보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농과원은 아주대 의대와 공동으로 약리효능 검증을 위해 애매미유충 눈꽃동충하초의 알코올 추출물을 선천성 고혈압 쥐에 투여한 결과 수축기 혈압이 161mmHg에서 110mmHg로 떨어져 정상혈압

으로 회복했고, 고혈압 쥐에 서만 선택적으로 혈압강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의전화:031-201-0400.

상황버섯 톱밥재배법 개발

상황버섯의 톱밥재배방법이 개발돼 재배농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북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상황버섯은 항암효과 등 면역활성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약용버섯으로, 몇해 전부터 참나무 원목 등에 인공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참나무 원목에 인공재배하는 것은 노동력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

어 2년 전부터 톱밥을 이용한 인공재배 시험에 들어가 이번에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톱밥재배는 원목재배와 달리 1년에 3~4기작 재배가 가능해 버섯 재배농가들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또 원목재배에 비해 수확량이 2배 늘고, 30일 가량의 배양 소요일수는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농업기술원 조우식 연구사는 "톱밥재배는 원목재배보다 재배방법이 훨씬 쉬워 처음 재배하려는 농가들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초기 부담이 적고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화:053-320-0231.

파주 '장단인삼' 특산명품 추진

경기 파주시가 '파주장단인삼'을 특산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파주장단인삼'은 한때 개성인삼과 함께 명성이 높았으나 한국전쟁으로 명맥이 끊겼다가 30여년 전부터 민통선 북방지역을 중심으로 영농이 시작되면서 장단인삼의 옛 명성을 되찾고 있다고 파주시는 밝혔다. 파주시는 비무장지대와 감악산 기슭에서 생산되는 인삼의 생산기반을 구축, 수출농업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목표로 인삼생산 신기술 보급과 함께 품질의 고급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들국화 한방베개 개발 야생들국화에 황기 천궁등 첨가

야생들국화를 소득작물화할 수 있는 가공법이 개발됐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지난 달30일 원내 약초연구팀에서 자생식물 발굴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상품개발에 나서 야생들국화를 이용, 향기치료 효과가 있는 한방베개 가공법을 개발했으며 자체분석 결과 상품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공법 개발은 쓸

모없이 버려지는 야생식물을 이용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로 탈바꿈시켰으며 엄청난 양의 야생들국화가 훌륭한 자원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들국화 한방베개는 주 내용물은 들국화의 줄기와 꽃에다 황기와 천궁, 박하 등 한약재를 일정량 첨가한 뒤 건조시킨 것으로 들국화가 가진 약효를 향기치료 형태로 이용한 것이다.

약용식물의 효능을 소개한 중앙대사전에는 들국화가 혈압을 낮추는 작용과 항바이러스 및 항균작용, 눈과 머리를 맑게 하는 효능이 높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실제 피로 회복과 정신안정 효과로 숙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새로운 의학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향기치료(아로마테라피)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들국화 한방베개가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돼 버려지는 야생식물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